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3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데이터산업과	담 당 자	• 블록체인트임장 구병길 ☎440-3271 • 담당자 이영미 ☎440-327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 시동
 -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위한 마스터플랜(2023~2027) 수립 연구용역 -
 - 블록체인 기술 지역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세부 실천방안 마련 -

인천시가 블록체인 허브도시 기반 조성과 디지털 경제 산업 선도를 위한 기본 구상을 그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4개년(2023~2027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 등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4개년 간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해 인천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용역은 오

는 3월 31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6개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인천시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 △인재 양성, 기업 유치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향상 방안 등의 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으로 진화 중이며, Web3.0, NFT 등 기술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4개년 간 140여억 원을 투입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블록체인 전략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블록체인 산업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 혁신지원센터 유치를 통한 실증·사업화 확대, 블록체인 칼리지 개설, 블록체인 기술 서밋 포럼 개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겠다” 며,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